

FDA, 낙태약 일반 약국 판매 허용



▲ 약국판매가 허용되는 낙태약 미페프리스톤. 사진=연합뉴스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소매 약국에서 낙태약 미페프리스톤 판매를 허용할 예정인 것이라고 알려졌다.

4일 '뉴스'에 따르면 로이터 통신은 전날 제약사 젠바이오프로를 인용해 이와 같이 보도했다. FDA가 미페프리스톤을 제조·유통하는 제약사 젠바이오프로와 덴코 래버러토리스의 판매 관련 규제를 일부 완화한 것이다.

낙태약 미페프리스톤은 임신 초기인 10주 이하 기간 중 복용하면 낙태를 유발한다.

원래 이 약을 구입하려는 환자들은 의사 처방전을 받고 일부 통신판매 약국에서만 이 약을 구입할 수 있었다. 하지만 조 바이든 행정부가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해 이 제한이 일시적으로 풀렸다. 그런데 이번 FDA 결정으로 이 제한이 영구적으로 폐지돼 앞으로는 원격 진료로 발행한 처방전으로도 약물 구입이 가능하며 일반 약국에서도 약을 구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앞으로 일반 약국에서 미페프리스톤 낙태약을 사는 경우에도 처방전은 필요하다.

지난해 7월 미 연방대법원이 낙태권을 폐기하는 판결을 한 후 낙태 권리가 급속도로 축소됨에 따라 조 바이든 행정부가 낙태권 보장을 위해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이번 FDA의 규제 변경 사항에는 원격 의료를 통한 처방전의 발행과 약물 우편주문 배송에 대한 제한을 영구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포함돼 있어 앞으로 약물에 대한 접근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캘리포니아주, 흑인 청소년 단속 백인의 6배

캘리포니아주에서 흑인 10대 청소년 보행자와 운전자에 대한 단속이 백인 청소년에 비해 6배나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4일 '뉴스'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인종 및 정체성 프로파일링 자문 위원회'는 전날 2021년 한 해 동안 주 경찰관이 보행자와 운전자를 검문한 자료와 통계가 담긴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단속된 310만 명 가운데 42%는 히스패닉이나 중남미 출신, 30% 이상이 백인, 15%가 흑인이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주의 2021년도 인구 센서스에 따르면 흑인 인구는 전체인구의 겨우 6.5%에 불과하고 백인이 35%를 차지하고 있다. 히스패닉이나 중남미 출신은 46%를 차지한다.



▲ 흑인 청소년을 검문 중인 샌프란시스코 경찰. 사진=sutterstock

2.2배 높았다. 또 경찰의 흑인 청소년에 대한 폭력을 행사가 백인 청소년보다 두 배 이상 더 많았다. 보고서는 "그럼에도 단속된 흑인들이 투옥이나 기소 등 후속 조치에 이르는 경우는 다른 인종보다 더 적었다."며 "이는 경찰의 차별적 단속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흑인들이 피해를 입은 증거"라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같은 사건이라도 흑인일 경우 백인에 비해서 단속될 확률이

전기차 구매 의향 미국인 70% "가격 5만 달러 이하 원해"

미국에서 전기차를 원하는 소비자들은 늘었지만 여전히 높은 가격이 전기차 구매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4일 '뉴스'에 로이터통신을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컨설팅업체 딜로이트가 지난해 9~10월 진행한 설문에서 미국의 잠재적 전기차 구매자들 10명 가운데 약 7명은 다음 자동차를 구매 비용으로 5만 달러 미만을 지불할 것이라고 답했다.

전기차를 산다면 비용이 가장 큰 걱정거리라고 답한 응답자는 절반이 넘었다. 전기차 업체들은 높은 인플레이션을 이유로 차량 가격을 올리고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전기차 업계 1위의 테슬라에서 가장 인기있는 '모델



▲ 테슬라 전기차 '모델 Y'. 사진=테슬라

Y'는 가격이 6만5,990달러부터 시작한다. 전통적 자동차업체 포드의 머스탱마하 전기차 모델은 최저가가 4만6,895달러다.

높은 가격에도 전기차를 사겠다는 미국인들은 늘었다. 설문에서 전기차를 구매할 의향이 있는 응답자 비중은 전년보다 3%p 늘었다. 석유와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하이브리드 차량 구매의향 비중도 3%p 높아졌다. 석유로 움직이는 내연기관차 구매 의향을 밝힌 미국인 비중은 68%에서 62%로 낮아졌다.

딜로이트의 카렌 보먼은 부회장은 "자동차 값이 기록적 수준으로 높다는 것은 차 소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만 주유 비용을 낮추려는 열망은 전세계에서 전기차 구매 욕구를 끌어 올리고 있다."고 말했다.

날말퍼즐 정답

1	조	만	간	2	전	화	위	3	복				
강			4	가	망				사				
지			5	출	마		6	뒷	뼈				
7	처	8	지		슬		9	전	10	우			
		11	척	12	도		13	소		14	물	15	살
16	지			착		17	개	펼					얼
역					18	부	팅						음
19	구	연	동	화			20	계	시	판			

1454호 숫자퍼즐 (이번호 정답은 P45에 있습니다)

9					2			6	3		
5					8	6					
		3			4		7		8		
			1	5					6		
6							4	7			
									1	5	
							4		2		6
3	2										
		6	9	2			8				1